



다양한 동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어류까지
사람과 일상 함께하는 '반려동물'
긍정적 변화 속 사회 문제도 대두
바른 정보로 모두 행복한 세상을

우리 국민 4가구당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대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2018년 511만 가구에 비해 8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는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는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한라일보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하이 펫(Hi Pet)'이라는 코너를 개설해 반려동물과 사람들의 함께사는 세상 여행을 떠나본다.

반려동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이다. 즉 사람이 키우는 동물 중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반려동물에 포함된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개와 고양이부터 소형 포유류(토끼, 햄스터, 고슴도치, 페럿 등), 조류(앵무새류, 닭, 오리 등), 양서파충류(도마뱀류, 거북이류, 뱀류 등), 어류(금붕어류, 열대어류 등) 등 매우 다양한 동물들이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와 가장 오



지난해 열린 제주 반려동물 페스티벌. 한라일보 DB

랜 시간 함께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활발히 연구 중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영광의 자리의 주인이 약 1만 4000년부터 인간과 함께 생활해온 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길러지고 있는 반려동물은 어떤 동물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약 80% 정도가 개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는 2위인 고양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전체 가구 중 약 20%가 고양이, 약 6% 정도가 기타동물을 반려하고 있음, 중복응답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체 합이 100%를 넘을 수 있다) 1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굳이 위와 같은 통계자료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중매체, SNS 미디어 등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과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이 늘어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분야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과 공동체 내의 논란과 쟁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른바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명암이다.

대표적으로 신문의 사회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기동물의 증가 및 동물 유기에 대한 문제, 개 물림과 같은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이웃·가족 간의 분쟁 등이 이에 속한다.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이 빠른 시간에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산업분야의 발전과 국민적 의식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 이런 거창한 것들을 제쳐두고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덮어놓고 외면할 수만은 없다. 부디 이 지면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주춧돌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김윤기·제주동물병원장>



김윤기 원장은...

- ▷임상 수의학 박사 수료
- ▷전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 동물병원/야생동물 구조센터 진료 수의사
- ▷전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고양이집결/응급수의학 겸임교수

영화觀

코로나 이후 첫 테이프 누가... 눈치싸움

코로나19 이후 주요 작품의 개봉 시기를 놓고 대형 배급사 간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배급사가 어떤 작품으로 첫 테이프를 끊을 것인가 영화계 최대 관심사다. 첫 작품 흥행 향배에 따라 극장이 정상화 가능성에 판단해볼 수 있어서다.

침입자·초미의 관심사 등 중급 규모 영화 개봉 확정 도굴 등 대작 하반기 가닥

“생활 방역 전환됐지만... 개봉 여건 안 좋아” 고심도

송지호 주연 '침입자', 조민수와 래퍼 치타(본명 김은영)가 호흡을 맞춘 '초미의 관심사' 등 중급 규모 한국 영화들은 이번 달 개봉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형 배급사들이 준비하는 총제작비 100억원대 규모 작품들은 아직 개봉일을 잡지 못했다.

7일 영화계에 따르면 CJ엔터테인먼트는 이제훈 주연 '도굴'을 하반기에 선보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 방역)로 전환됐지만, 극장 좌석간 띄어 앉기가 시행되는 등 개봉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30일부터 5월 어린이날까지 셋새간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관객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전체 관객은 49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540만명의 11분의 1에 불과했다.

전체 도굴꾼이 전국 각지 전문가들과 함께 땅속에 숨은 유물을 파헤치는 내용의 범죄 오락 영화 '도굴'

(박정배 감독)은 총제작비 100억원 가량 든 작품으로, 250만명 이상이 들어 손익분기점을 넘긴다.

CJ는 7월 초 황정민·이정재·박정민 주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8월 초 윤제균 감독 신작 '영웅'을 선보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롯데컬처웍스는 6월 초 영화 '차인표'와 6월 말 '얼론' 개봉을 저울질하고 있다. '차인표'는 배우 차인표 특유의 개성과 이미지를 유쾌한 웃음으로 풀어낸 코미디물로, 신에 김동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얼론'은 유아인·박신혜 주연 재난 영화로, '살아있다'로 제목을 바꾸고 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쇼박스도 6월 초 영화 '국제수사' 개봉을 고려 중이다. 경쟁작 '도굴'이 6월 신작 리스트에서 빠짐에 따라 개봉 여건이 한층 나아진 점이 고려됐다.

메가박스도 코로나 19 이후 첫 영화로 7월 초 '오케이! 마담' (이철하 감독)을 택했다. 파매기 맛집 사장 미영과 컴퓨터 수리 전문가 석환 부부가 생애 첫 가족 여행 중 벌어진 하이재킹에서 가족을 구하는 내용의 액션 코미디다. 엄정화가 '미쓰와이프' (2015) 이후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작품이어서 관심을 끈다.

뉴는 올 여름 개봉하는 연상호 감독 신작 '반도'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도 송중기·김태리 주연 '승리호' 여름 개봉을 확정하고, 론칭 예고편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특히 올 여름에는 할리우드 대작이 없는 만큼 국내 블록버스터 영화계리 경쟁하면서 침체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조민수와 래퍼 치타가 호흡을 맞춘 '초미의 관심사'.

사진=트리플픽처스 제공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정으로 안심 !!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10년

8개 참여기업 "하자보증기간" 비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